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129-172
<https://doi.org/10.29212/mh.2020.117.12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본 학계의 唐代 軍制史 研究 動因과 논점

이기천*

1. 머리말
2. 府兵制, 藩鎮 연구의 개척과 논점
3. 戰後 軍제사 논쟁의 계보
4. 戰後世代의 軍제사 연구의 특징
5. 맺음말

1. 머리말

“국가의 중대한 일은 제사와 전쟁에 있다(國之大事, 在祀與戎).”
전근대 군주 권력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左傳』 成公 13年
條의 명구다. 제사(祀)가 정권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의례적 행위

* 서강대학교 사학과 강사

를 총칭한다면, 전쟁(戎)은 군주 권력의 근간인 군제의 운영 및 군사권의 장악 등 일체의 군사 행위를 의미한다. 정권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왕조는 당시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망라하여, 군사제도를 편성·운영했다. 그러나 단순히 병력 규모만 집착하여 齊民의 재생산과 수취체제를 무시하고 병력·물자 동원을 강행한다면, 煬帝의 고구려 침략 실패와 隋의 멸망처럼 왕조의 몰락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리고 군제의 운영권이 군주, 권신, 지방 호족 등 누구에게 있었는가의 문제는 지배체제의 성격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했다. 아울러 어떠한 부류의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 兵役을 부담시켰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사회구성의 해명에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軍制史 研究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軍制史 研究에서 唐代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正史에서 「兵志」가 처음 출현한 것은 『新唐書』였고, 唐代 편찬된 典章類 사서인 『通典』에서도 「兵典」이 독립되었다. 唐은 魏晉南北朝 3백여 년의 분열시대를 종식하였고, 7세기에는 동부 유라시아에 제국을 건설했던 왕조이다. 영토 확장의 배경 중 하나는 당 왕조가 효과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군사권을 집중할 수 있던 군사제도의 편성과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高麗와 朝鮮에서 “府兵” 혹은 “府衛之兵”으로 호칭되던 軍人의 존재는, 唐의 府兵制가 한국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일본 학계는 근대적 역사 연구방법이 일찍부터 정착되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근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역사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 唐代 軍制史 연구로 한정하자면, 일본에서는 1930년 濱口重國의 唐代 府兵制에 대한 선구적인 전문연구가 출간된 이래로 다수의 학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천착하며 계통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¹⁾

1) 이에 반해 중국 학계에서는 1930년대 후반 陳寅恪, 杜治의 연구(陳寅恪, 「府兵制前

근대 일본의 사학자 內藤湖南(1866-1934)은 唐 中期까지를 中世(中古), 宋 이후를 近世로 시대구분하며, 그 배경에 대해 “唐의 붕괴는 곧 귀족정치가 붕괴한 것이며, 이것은 군대의 제도에서 초래되었다”고 밝혔다.²⁾ 그의 지적은 일본의 동양사학계에 시대구분논쟁³⁾과 함께 군제사 연구⁴⁾에 대한 큰 자극을 주어, 일본에서 唐代 軍制史에 대한 활발하고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사를 세계사적 보편법칙에 따라 이해하려는 戰後 일본의 연구경향과 자국의 고대사와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기사계급, 일본의 무사계급이 중국의 중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期史料試釋,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7-3, 1936; 杜洽, 「唐代府兵考」, 『史學年報』 3-1, 1939)가 발표되었지만, 후속 연구로 계승되지 않았고 연구자의 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을 즈음하여 唐代 軍制史에 대한 專論(唐長孺, 『唐書兵志箋正』, 北京: 科學出版社, 1957; 岑仲勉, 『府兵制度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57;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이 출간되었지만, 중국 학계의 唐代 軍制史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학계에서는 1970년대 金善昱의 기초적 연구, 1990년대 金羨珉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金善昱, 「唐代之折衝府에 관한 연구」, 『충남대논문집』 10, 1971; 金善昱, 「唐代之府兵制」, 『湖西史學』 4, 1976; 金羨珉, 「唐代 府兵役의 性格에 관하여」, 『魏晉南北朝史研究』 2, 1996; 金羨珉, 「唐 開元·天寶期 서북지역의 兵役諸道 변화」, 『歷史學報』 151, 1996.)

- 2) 內藤虎次郎, 『支那近世史』, 神田喜一郎·內藤乾吉 共編, 『內藤湖南全集』 10, 東京: 筑摩書房, 1969, p. 362(原刊: 『中國近世史』, 東京: 弘文堂, 1947.)
- 3) 內藤湖南이 日本의 中國史學界에서 점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는 內藤湖南研究會, 『內藤湖南の世界—アジア再生の思想』, 名古屋: 河合文化教育研究所, 2001; 小松浩平, 「內藤湖南における東アジア觀の再檢討」, 『教育論叢』 55, 2012; 楊棟梁, 「在學識與良知之間——國策學者內藤湖南的‘支那論」, 『史學月刊』 2014-7 참조. 內藤湖南에 의해 촉발된 중국사의 시대구분논쟁에 대해서는 閔斗基 編, 『中國史時代區分論』,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4 참조.
- 4) 軍제사와 관련된 시대구분 논쟁은 魏晉南北朝의 豪族이 거느리던 사병, 즉 部曲을 奴隸나 隸民으로 이해하여 그 관계를 봉건적·중세적 주종관계가 아닌 고대적 노예관계로 이해한 입장(加藤繁, 「支那と武士階級」, 『史學雜誌』 50-1, 1939)과 근세와 구별되는 중세의 특징으로 國民 皆兵主義를 제시한 立場(宮崎市定, 『東洋における素朴主義と文明主義の社會』, 東京: 富山房, 1940)이 대립하며 전개되기 시작했다.

일본 학계의 중국 중세사 연구를 정리한 작업이 없지는 않지만,⁵⁾ 唐代 軍制史를 관통하는 논점이나 논쟁들 사이의 계통성을 해명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기초적인 연구를 완성했던 일본의 사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2차 대전을 경험했으며, 戰後세대가 학계의 중심이 되었던 1980년대 이전까지는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특징이 주목된다. 本稿에서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일본 학계의 독특한 경향성, 즉 전쟁을 경험했던 일본의 학자들이 唐代 軍制史를 연구하게 된 動因과 활발한 논쟁을 통해 형성된 學風을 검토하고자 한다.

2. 府兵制, 藩鎮 연구의 개척과 논점

濱口重國(1901-1981)은 唐代 軍制史 연구를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척한다. 그는 1930년 『史學雜誌』 41卷 11號와 12號에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를 연속으로 게재하여, 唐初 府兵制의 시행부터 唐 中期 부병제의 이완과 이를 대체하는 團結兵, 長征健兒, 曠騎 등 새로운 軍制의 출현을 검토했다.⁶⁾ 東京帝國大學文學士學位論文이기도 한 이 논문은 “(그의) 고전적 노작은 지금도 전거할 만한”⁷⁾ 연구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대 군제사, 특히

5) 氣賀澤保規, 「前期府兵制研究序說—その成果と論點をめぐって—」, 『法制史研究』 42, 1993; 候旭東, 「八十年代以來魏晉南北朝軍事制度史研究概述」, 『中國史研究動態』 1994-1; 小尾孟夫, 「六朝時代における軍制史研究の現状と課題」, 『六朝都督制研究』, 廣島: 溪水社, 2001.

6)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上, 東京大學出版會, 1966 (原載: 『史學雜誌』 41-11-12, 1930); 이하 濱口重國의 여러 논문은 상기한 연구서에서 인용.

7) 菊池英夫, 「府兵制度の展開」, 『岩波講座 世界歴史』 5, 東京: 岩波書店, 1970, p. 423. 注(1). 이하 본문에서 재차 인용하는 연구논저는 저자명, 논저명, 쪽수로 약칭함.

부병제 연구의 기반이 되어왔음은 중국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다.⁸⁾

濱口の 唐代 府兵制 연구의 요지는 ① 중앙집권적 군제, ② 兵農一致, ③ 折衝府의 偏在로 인한 兵役의 불평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대 부병제는 都督府·總管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수립되었다. 魏晉南北朝 사병이 횡행하고 지방의 군사조직이 산재했던 문제를 극복하고, 중앙의 兵部에서 일괄적으로 조직·관리하는 중앙집권화된 군제가 바로 당대 부병제의 특징이다.⁹⁾ 병력 동원은 折衝府가 설치된 지역의 농민, 즉 均田制에 의해 受田한 백성 중 壯丁이 충분한 戶에서 건강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揀點함으로써 ‘府兵’으로 징병했다. 부병은 衛士로서 1-2개월간 교대로 수도를 경비하는 番上, 防人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 기간 중 1회에 한해 3년간 변경에 鎮戍, 衛士나 防人이 아닌 府兵은 집에서 生産에 종사하며 農閑期에는 훈련을 받는 등 중앙·지방·변경과 관련된 3종의 兵役을 부담했다. 절충부의 총수에 대해서는 사료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¹⁰⁾ 濱口는 절충부의 폐지와 증치가 거듭되었기에 그 是非보다 전체 절충부의 약 65%가 長安과 洛陽에 집중되었던 분포상황에 주목하여, 이러한 절충부의 偏置가 부병제의 붕괴 요인이었다고 논증했다.

그렇다면 濱口重國은 어떠한 배경에서 昭和 초기까지 미개척 분야였던 唐代 軍制史에 천착하게 된 것일까? 濱口重國이 “漢~唐을 중심으로 중국사 연구의 기초적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생애는 정말로 20세기의 개막과 함께 生을 누렸으

8) 張國剛, 「唐代府兵制的演變與中古社會變遷」, 『中國社會科學』 2006-4, p. 178.

9)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 6.

10) 574府(『通典』, 『樊川文集』), 594府(『唐六典』), 630府(『鄴侯家傳』), 633府(『唐會要』 卷72), 634府(『唐會要』 卷70)로 각 사료별 기록이 상이하다. 한편, 折衝府의 總數 問題는 20여 년 후 府兵制의 사료적 신빙성 논쟁으로 이어진다(菊池英夫, 「唐代 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 『史淵』 58, 1953.)

며, 明治·大正·昭和의 영광과 그림자를” 경험한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¹¹⁾ 그가 살아왔던 시대의 분위기에 주목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자.

1901년(明治 34) 高知縣에서 태어난 濱口重國은 양친이 모두 士族 출신이었고 濱口氏 가문은 대대로 상선업을 가업으로 삼아 비교적 윤택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친 濱口重政은 고위 경찰관료였으며, 重國의 이복형 重猛은 상선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과 가업은 어린 濱口重國에게도 영향을 주어 유년시절 그는 조선학을 지망하기도 했으며, 아버지의 잦은 전출로 인해 金澤, 廣島 등으로 수차례 이주했다. 항구도시 거주는 그에게 독특한 기억을 남겼는데, 그의 유품인 육성녹음 테잎에 따르면 대여섯 살에 불과했던 러일전쟁 당시 宇品港에서 벌어진 승리의 제등 행렬이 인상적이었다고 술회했다.¹²⁾ 이러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濱口重國은 동년배보다 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 앞설 수 있었다.

잦은 전학도 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廣島에서 小學校에 입학하여 岡山, 福山, 福岡 등을 거쳐 長野縣에서 졸업했다. 당시 정주민의 이동이 흔치 않았기에, 濱口重國은 전학생으로서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 중학시절 그는 안과 질환으로 인해, 지망했던 조선공학의 꿈을 포기하여 第三高等學校(이하三高로 약칭) 이과를 중퇴하고 다음해 문과로 재입학했다. 당시 永平寺에서 參禪을 경험하게 된 것이 불교와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켰다. 그는 禪宗의 목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중생의 고통에서 비롯된 是非의 문제라 언급할 정도로 인간중심의 사고를 강조했다라고 한다.¹³⁾ 이와 같은 성장기 경험은

11) 菊池英夫, 「濱口重國(1901~1981)」, 今谷明 等 編, 『20世紀の歴史家たち』 2, 東京: 刀水書房, 1999, p. 227.

12) 菊池英夫, 「濱口重國(1901~1981)」, p. 228.

훗날 군제사 연구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三高에서는 불교청년회를 조직해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인근 京都帝大의 桑原隲三, 狩野直喜 등 교수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자로 초빙된 교수 중에 「天平文化と唐文化との關係」를 논한 内藤湖南, 唐代 社會史를 전공한 那波利貞이 포함되었다. 濱口重國이 훗날 唐代를 전공하게 된 것도 두 사람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¹⁴⁾ 이후 京都에서 靜岡으로 이사한 濱口重國은 1926년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東洋史學科에 입학하여¹⁵⁾, 藤田豊八, 池内宏, 加藤繁 등에게 사사했다.

그가 대학에 입학한 1920년대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창당했고, 제1차 국공합작 하에 노동운동이 고양되었다. 한편, 북중국에서는 張作霖 폭살사건(1928), 만주사변(1931) 등 일본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본의 소장 학자들은 ‘中國社會性格論爭’, ‘中國社會史論戰’, ‘아시아적 生産樣式論爭’ 등을 전개했다.¹⁶⁾ 그러나 濱口重國은 자신은 “매우 역센 가정교육을 받았고 동양적 정신 혹은 불교에 마음이 끌렸기에”, 갑작스럽게 마르크스 이론에 동조하는 것에 “일종의 반발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유물사관과 거리를 두었다고 한다.¹⁷⁾

13) 鈴木一郎, 「(回想)濱口重國先生」, 『東北學院大學論集』(歴史學地理學) 38(史學科創立40周年記念特輯號), 2005, p. 53.

14) 菊池英夫, 「濱口重國(1901~1981)」, p. 229.

15) 東京帝大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① 당시 濱口重國의 病患(장티푸스와 근막염), ② 분가와외의 거리, ③ 아버지의 방침(“男子는 젊었을 때 帝都 東京의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등이 있다(菊池英夫, 「濱口重國(1901~1981)」, p. 229.)

16) 1920년대 일본에서 마르크스주의 전파의 요람은 노동자 단체보다 대학이었다. 1924년 결성된 學生社會科學聯盟은 53개 대학, 6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했는데 그 목적은 지식인·학생 사회 내의 프롤레타리아 의식의 고양과 PT운동의 공헌이었다(한상일, 『日本 軍國主義의 形成過程』, 서울: 한길사, 1982, p. 96.)

17) 菊池英夫, 「濱口重國(1901~1981)」, p. 229.

대신 池內宏, 藤田豊八의 사료비판과 세밀한 고증법에 매료되어, 唐代 制度史에 흥미를 품고 1929년 3월 졸업논문으로 「府兵制度から新兵制へ」를 제출했고, 이것이 軍制史 研究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잡은 이주로 인한 따돌림, 지속적인 질환, 전쟁에 대한 간접 경험과 군국주의로 점철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濱口重國이 군제사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했던 논점은 무엇이였을까? 그가 부병제에 대한 前近代 다양한 議論을 재검토하며, 부병제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王夫之는 부병제가 군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任爲兵與否也”)도 묻지 않고 전문 군인이 아닌 農民을 징병한 軍制로서, 사실상 군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며(“猶之乎無兵也”) 당 중기 이후 혼란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스스로 약해지는 원인(“欲弱天下以自弱”)이 되었다고 혹평한 바 있다.¹⁸⁾ 이에 대해 濱口는 역사적 사실은 당시의 맥락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대 사료에 기반하여 부병제는 민첩한 군사대응이 가능했던 군제라고 평가했다. 즉, 明代는 徵兵制가 소멸되고 募兵制가 시행되던 시기였기에, 王夫之가 징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¹⁹⁾

반면 兵農一致를 근거로 부병제를 이상적인 군제로 평가한 前近代 議論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宋代 陳傅良은 唐代 府兵制를 농민으로서 병사는 (군사활동으로 인해) 生業을 잃지 않고, 장수는 병권을 장악하지 못하므로(“故士不失業, 而將帥無握兵之重”), 부병제는 禍亂의 싹을 막을 수 있는(“絕禍亂之萌也”) 이상적인 군제로 평가한 바 있다.²⁰⁾ 濱口重國은 중국 고중세 군

18) 『讀通鑑論』(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6) 卷20 「太宗」4, pp. 701-702.

19)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p. 31-32.

20) 『歷代兵制』(北京: 中華書局, 1985) 卷6 「唐」, pp. 38-39.

제를 통사적으로 분석하며 唐代 府兵制의 역사적 의의를 兵農一致에서 모색했다.²¹⁾ 그 요지는 “분산된 병권을 중앙으로 회수하고, 게다가 그 회수된 병권을 兵農一致의 정신하에 구성하게 한 것이 다름 아니라 西魏의 新兵制이며, 그것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唐의 府兵制度였다”는 것이다.²²⁾ 즉, 부병은 사병이 횡행하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일국의 병권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동시에, 생계수단이 보장된 受田民을 대상으로 각 지방에서 징병하는 제도로서, 당제국을 지탱하는 군사력의 원천이라는 평가이다.

濱口重國의 研究動因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당시 일본의 군사제도의 전개과정이다. 특히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서술한 대목에서 “兵役은 국민의 중대한 부담”이라는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으며,²³⁾ 의식적으로 일본의 군제와 당대 부병제를 비교했다. 그는 唐代 府兵은 국민 개병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았다.²⁴⁾ 揀點率에 대해서는 西魏·北周·唐 모두 3丁마다 1丁의 비율로 간점했으며, 이는 日本 軍團制의 간점비율과 동일하다고 밝혔다.²⁵⁾ 中日간의 간점률의 비교는 唐승의 소실을 구실로 일본의 고대 율령을 통해 推斷하는 증명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濱口 스스로 일본의 고대 군제(軍團制)와 唐의 府兵制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養老승과 大寶승을 통해 散佚된 唐승을 보충하는 형식의 傍證法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²⁶⁾

21) 濱口重國, 「前漢の南北軍に就いて」, pp. 252-253; 濱口重國, 「魏晉南朝の兵戶制度の研究」, pp. 358-361; 濱口重國, 「西魏の二十四軍と儀同府」, pp. 212-213;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p. 24·31-36·45-46.

22)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 33.

23) 濱口重國, 「はしがき」, 『秦漢隋唐史の研究』上, p. 1.

24)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p. 16-18.

25) 濱口重國, 「西魏の二十四軍と儀同府」, pp. 206-207;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p. 24·36-37.

26)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 37.

「我國の軍防令に就いて」라는 附說을 1章의 말미에 첨부하여 일본의 軍團制가 ① 軍단이 인구에 비례하여 均置되었고, ② 番上과 邊境守備을 담당하는 해에는 課役이 면제되었으며, ③ 在役期間은 1-2개월이 아닌 1년 1회로 고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당대 부병제와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中·日 軍제의 비교 분석은 양자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는 濱口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징병제에 대한 濱口の 관심은, 昭和 2년(1927)에 ‘일본의 전체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兵役法이 선포된 일본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⁷⁾

한편, 1940년대 日野開三郎(1908-1989)이 『支那中世の軍閥』을 출판하면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唐 後期の 軍제인 藩鎮體制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²⁸⁾ 1908년 愛媛縣에서 태어난 그는 1928년 東京帝國大學에 입학한다.²⁹⁾ 당시 加藤繁, 池内宏, 和田清 등의 指導를 받았으며, 3학년의 濱口重國, 青山定雄 등이 선배였고, 旗田巍, 板野長八 등이 동기였다. 학부졸업 논문은 南北朝時代の 契와 宋代 詭戶를 주제로 작성하다가 질병으로 휴학하고, 「北宋時代の鹽鈔に就いて」라는 제목의 논문을 1930년 제출했다. 『支那中世の軍閥』을 출간하기 전인 1942년까지 그의 주된 관심사는 北宋의 화폐문제였다. 交子の 발행 및 동전 주조 등에 대한 관심은 五代之 재정문제로 옮겨갔다.³⁰⁾ 藩鎮體制에 관심을

27) 徵兵令에서 兵役法으로의 전환, 兵役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加藤陽子, 『徵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東京: 吉川弘文館, 1996, pp. 188-206 참조.

28)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唐代藩鎮の研究—』, 東京: 三省堂, 1942.

29) 이하 日野의 약력 및 성장배경에 대해서는 日野開三郎, 「日野開三郎博士自撰年譜」,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pp. 7-10 참조.

30) 日野開三郎, 「五代の沿徽に就いて」, 『史淵』 13, 1936; 日野開三郎, 「五代藩鎮の券絲絹と北宋朝豫買絹」, 『史淵』 15-16, 1937; 日野開三郎, 「唐代便換考」, 『史淵』 22, 1939.

기울이게 된 계기도 이러한 본인의 주전공인 송대 경제사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日野開三郎의 연구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藩鎮은 府兵制에서 新兵制로의 이행과정과 均田制가 이완되는 상황에서 출현했다.³¹⁾ 군전제의 이완으로 출현한 流民을 군대로 흡수해 傭兵으로 삼았으며, 藩鎮은 종래 변경에서 군사 임무를 맡고 있던 都督府·都護府를 대신했고, 安史의 亂 이후 당의 새로운 지방 지배체제로 발전했다. 기존의 지방제도인 州·縣 위에 복수의 州를 관할하는 藩鎮이 설치되고, 그 장관인 節度使는 軍政·民政·財政의 3권을 장악하는 강력한 지방권력자가 되었다. 중앙에 대해 半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변진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손에게 節度使의 지위를 세습하고, 관할 구역 내에서의 재정 및 임용 등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安史軍의 降將이 재임용된 河北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河朔의 舊事’이다. 淮西·淄淸 등 河北과 인접한 河南 지역의 변진들도 河朔의 舊事를 모방했다. 변진은 내부적으로 團結兵³²⁾과 사병을 모아 정예부대를 형성했고, 외부적으로 外鎮에 나가 있는 蕃將을 통해 刺史를 제압하거나 겸임하여³³⁾ 주·현까지 변진의 지배를 관철시킴으로써, 조정에 반독립적인 할거상황이 전개되었다.

唐朝는 변진을 축소·통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대응

31)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p. 38; 이하 藩鎮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日野開三郎, 『唐代藩鎮の支配體制』(『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 東京: 三一書房, 1980에 수록된 여러 논문을 참조.

32) 日野開三郎은 적은 비용으로 상당수 團結兵이 藩鎮에 招募되었다고 주장했다(日野開三郎, 「大唐府兵制時代に於ける團結兵の稱呼とその普及地域」, 『唐代藩鎮の支配體制』, pp. 176-179.)

33) 日野開三郎, 「唐代藩鎮の跋扈と鎮將」, 『唐代藩鎮の支配體制』, pp. 363-373.

하여 지방을 장악한 節度使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심지어 反唐을 선언하며 皇帝를 자칭하기도 했다. 德宗時代 번진의 반란이 두드러졌지만, 당조의 강력한 대응책과 반란군 내부의 하극상으로³⁴⁾ 종결되었다. 또한 憲宗時代에는 대규모의 削藩戰爭이 수행되어 역사적으로 ‘憲宗의 中興’이라고 평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日野는 번진체제를 “兩稅法의 창설까지가 發展時代, 憲宗의 개혁까지가 極盛時代, 그 이후가 弱體化時代, 群雄進占의 唐末은 이른바 變態時代, 五代가 終焉時代이고, 宋初가 死期”라고 시대구분했다.³⁵⁾ 반면 가장 강성했던 河北三鎮에 대해서는 德宗時代에 잠시 제압하였을 뿐 당조는 정책적인 회유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하북은 대규모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唐末까지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日野開三郎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번진의 성격을 중앙정부에 反하는 권력기구로 이해하고, 권력기구의 출현·발전·변형·소멸의 필연적 전개과정을 다방면에서 고찰하면서, ‘抑藩振朝’ 즉 번진을 억제하고 王朝를 진흥시키는 양태에 대한 모색이었다.³⁶⁾ 이를 통해 五代宋初에 결국 번진체제가 종식되고 오히려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인 宋을 탄생시킨 역사상 필연적 법칙을 밝히고자

34) 대표적인 하극상의 사례로 魏博을 들 수 있다. 최초의 절도사인 田承嗣부터 8代 절도사인 田布까지 하극상에 의한 절도사의 수립이 2건이었고, 幽州는 8代까지 3건, 成德은 1건이 보인다. 그러나 현종 이후부터 하극상에 의한 절도사 추대가 더욱 일반화되었다.

35) 日野開三郎, 「藩鎮時代の州稅三分制について」, 『唐代兩稅法の研究: 本編』(『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4), 東京: 三一書房, 1982, p. 293(原載: 『史學雜誌』 65-7, 1956.)

36) 日野開三郎, 「唐河陽三城節度使考」, pp. 336-337; 日野開三郎, 「唐代の戰亂と山棚」, pp. 495-508; 日野開三郎, 「憲宗の振朝抑藩策による地方鎮防力の弱體化」, 『唐末混亂史考』(『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9), 東京: 三一書房, 1996, pp. 128-131.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송대 경제사 전공자인 日野가 ‘抑藩振朝’를 키워드로 번진체제를 연구하게 된 動因은 무엇일까? 환언하면, 번진과 당조를 대립관계로 인식한³⁷⁾ 배경은 무엇일까? 日野가 藩鎮을 일관되게 ‘軍閥’로 규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 반면, 中國 學界에서는 唐末 藩鎮을 軍閥로 규정하지 않으며,³⁹⁾ 日野가 주로 분석했던 反중양정부 성격이 강했던 河北三鎮 외에도 중원·서북변경·동북·동남 등 다양한 지역의 번진이 상호 견제하며 전체적으로 왕조체제를 지탱했다는 대조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⁴⁰⁾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支那中世の軍閥』이 출판되었던 1940년대 일본의 정치·군사적인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근대 일본의 군제는 軍人勅諭에 근원을 두고 있었으며, 군인칙유는 바로 ‘天皇信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⁴¹⁾ 예컨대 明治憲法(1889)의 제1조에서는 “대일본제국은 萬歲一系の 천황이 국가원수로서 일본을 통치한다”고 명시했고, 제11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천황은 육·해군을 統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천황의 통수권을 저해하는 軍閥이 형성되었다.⁴²⁾ 明治時代에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藩閥이 형성되었고,

37) 日野開三郎, 「藩鎮體制と直屬州」, 『東洋學報』 43-4, 1961, pp. 4-8.

38) 단적으로 日野開三郎의 藩鎮에 대한 첫 연구성과의 제목은 『支那中世の軍閥—唐代藩鎮の研究—』이다.

39) 唐代 藩鎮體制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胡戟, 「藩鎮問題」, 『二十世紀唐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pp. 50-58 참조.

40) 張國剛, 「唐代藩鎮類型及其動亂特點」, 『歷史研究』 1983-4; 王授朝, 「唐代藩鎮分類芻議」, 『唐史論叢』 5, 西安: 三秦出版社, 1990.

41) 須山幸雄, 『天皇と軍隊』, 東京: 芙蓉書房, 1985, pp. 131-132.

42) 이하 軍閥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雄谷光久, 『日本軍の人的問題と問題點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87, pp. 343-354; 하정열,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일본 자위대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팔복원, 2004, pp. 200-201 참조.

점차 출신학교와 병과를 중심으로 파벌이 확산되었다. 大正·昭和時代에는 皇道派, 統制派, 櫻會, 一夕會, 二葉會 등 이념을 중심으로 파벌이 강화되었다. 군벌은 인사권에 영향을 미쳤고, 정치장교와 집단을 형성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가며, 국가와 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軍閥에 의한 下剋上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만주사변(1931)⁴³⁾, 2.26사건(1936)이다.⁴⁴⁾

주목되는 사실은 日野開三郎이 自撰한 자신의 年譜에서 두 사건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⁴⁵⁾ 그는 “昭和 6년(1931)의 만주사변을 自由主義의 謹終”으로 술회했다. 그리고 2.26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의형제를 맺고 있던 참모 대위가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일본인이기에 大正 15년 12월의 항목에 “大正天皇崩御”라 기록한 것은 일견 납득이 가지만, 쿠데타의 발생을 자신의 年譜에 기록한 학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日野와 동시대에 군제사를 연구했던 栗原益男, 布目潮瀨의 年譜에는 ‘2·26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는 日野에게 당시 軍閥의 난립이 큰 관심사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1940년 日野開三郎의 인생에 극적인 사건이 벌어

43) 만주사변의 실제 책임자인 石原莞爾는 昭和 軍閥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중령에 불과했던 중견 장교였지만, 관동군 참모 板垣征四郎, 國民改造論의 거두 大川周明, 政友會의 森格의 지지 하에 상부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극우파 軍閥을 조직하여 만주사변을 일으켰다(伊香俊哉, 『滿洲事變から日中全面戦争へ』(『戦争の日本史』 22), 東京: 吉川弘文館, 2007, pp. 10-15.)

44) 2·26사건 이전에도 皇道派의 하극상은 만연했다. 1931년 荒木貞夫가 陸軍大臣에 취임하면서, 皇道派는 宇垣閥을 제거하고 수상 犬養毅를 살해했으며, 1935년 8월에는 陸軍省 軍務局長 永田鐵山 소장이 皇道派 相澤三郎 중좌에 의해 살해당했다. 결국 1936년 2월 26일 22명의 皇道派 청년장교들이 1,400여 명의 사병을 이끌고 국가의 전면적 개조와 군사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육군성, 참모본부, 경시청 및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高橋是清, 齊藤實 등 정부 대신을 살해하면서 체제전복을 기도했다(藤原彰, 『日本軍事史』, 東京: 日本評論社, 1987, pp. 222-223.)

45) 日野開三郎, 「日野開三郎博士自撰年譜」, p. 8.

진다. 2월 10일 임시 소집되어 松山22聯隊에 입영한 日野는, 같은 달 26일 부친의 죽음으로 6월에 소집이 해제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소집된 동기 병사들은 대동아전선의 최전방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다. 그리고 2년 뒤인 1942년 日野開三郎은 『支那中世の軍閥』을 출판한다.

당시 군사·정치적 상황은 마치 唐末 藩鎮割據와 유사한 軍閥의 난립시기였다.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던 日野에게 현실 속 일본의 군벌과 그에 압도당한 내각은 번진세력과 당조로 투영되었던 것이다. 당대 번진세력과 근대 일본의 만주사변, 2·26사건은 하극상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다. 日野가 藩鎮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대신 軍閥이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藩鎮을 억제하고 王朝를 중흥시키는 양태를 추구한다는 ‘抑藩振朝’論은 결국 藩鎮體制[軍閥]가 종식되고 강력한 中央集權國家가 탄생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현실정치로 끌어내고자 했던 전쟁세대인 日野의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3. 戰後 軍제사 논쟁의 계보

唐代 軍制史 연구는 濱口重國의 연구 이후 약 20년이 지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 그 배경은 선행연구의 독보적인 성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戰後 아시아의 停滯性을 극복하고 세계사적 기본법칙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시대구분논쟁이 東京帝國大學(이하 東大로 약칭)와 京都帝國大學(이하 京大로 약칭)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영향으로

볼 수 있다.⁴⁶⁾ 東大 출신 혹은 그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漢·唐을 고대로 규정하며, 齊民은 皇帝의 개별인신지배를 받는 奴隸로 이해한다. 반면, 京都學派에서는 漢唐 간의 차이에 주목하며 唐의 출현에 대해 北朝 胡族國家의 영향에 비중을 두고 설명한다. 그들은 漢末까지를 고대 노예제 사회로, 魏晉-唐을 중세 농노제 사회로 이해한다. 비록 두 학파 간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그리는 두 개의 철로에 비유되기도 하지만,⁴⁷⁾ 중국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시대의 특징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唐代 軍制史로 한정하자면, 戰後 東大출신 日野開三郎의 후배 栗原益男과 日野의 제자 菊池英夫 등 東京學派와 京都學派 谷川道雄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栗原益男(1918-2000)은 東大를 졸업하고 東京學派의 연구모임인 歷史學硏究會의 幹事를 맡기도 했다.⁴⁸⁾ 그러나 1944년 징병되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같은 해 7月 어뢰 공격으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上知大學 교수(1964-1984)를 역임했다. 그의 출세작은 훗날 京都學派와의 열띤 토론을 야기한 唐·五代 藩鎮 내의 인적 결합의 성격에 대한 논문이었다.⁴⁹⁾ 즉, 1940년대 日野의 藩鎮體制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그의 연구의 시작이었다. 한편 菊池英夫(1930-)는 九州帝國大學에 입학하여, 東大 출신 日野開三郎과 鈴木俊의 지도를 받았다.⁵⁰⁾ 1952년 「五代禁軍의

46) 이하 東京學派, 京都學派 간의 논쟁은 谷川道雄, 「總說」, 『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의基本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7에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47) 谷川道雄, 「中國史의時代區分問題をめぐって—現時点からの省察—」, 『史林』 68-6, 1985, p. 971.

48) 이하 栗原益男의 생애와 연구경력에 대해서는 堀敏一, 「栗原益男先生年譜著作目錄」, 『(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中國古代の法と社會』, 東京: 汲古書院, 1988 참조.

49) 栗原益男, 「唐五代의假父子的結合の性格—主として藩帥의支配權力との關連において—」, 『史學雜誌』 62-6, 1953.

發展」으로 文學士를 취득하고 그 해 스타인 돈황문헌의 정리연구를 종합발표하는 「中國土地制度の研究」라는 제목의 東洋史研究會大會에 참석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⁵¹⁾ 이를 계기로 東洋文庫 研究員을 거쳐, 1966년 濱口重國의 후임으로 山梨大學에 임용된 후 北海道大學, 中央大學으로 전임했다.⁵²⁾ 초기 연구는 五代 禁軍의 변천과 性格에 집중되었다.⁵³⁾ 그러므로 栗原益男과 菊池英夫의 唐代 府兵制 연구의 기저에는 藩鎮體制의 연원과 府兵制 붕괴의 역사적 당위성을 모색하기 위한 관점이 전제되었다.

栗原益男과 菊池英夫의 唐代 府兵制에 대한 논점을 요약하자면, ① 부병제를 당대 유일한 병제로 이해했던 濱口重國의 說에 대해 그 외의 군제가 병존했다며, 부병제의 역사적 의미를 저평가한다.⁵⁴⁾ ② 부병제의 붕괴 원인은 濱口가 제기한 折衝府의 편중 외에도 당의 대외정책이 ‘羈縻政策’에서 ‘武力邊防主義’로 전환된 점, 주변 민족의 발흥이라는 추세를 간과할 수 없다.⁵⁵⁾ ③ 武

50) 池田熊一, 「菊池英夫教授・山崎利男教授の古稀の雅齡を祝う」, 『(中央大學文學部史學科)紀要』 45, 2000, p. 190.

51) 이 토론회는 戰後 진행된 東京學派와 京都學派 간의 논쟁의 정예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東大에서는 山本達郎, 周藤吉之, 仁井田陞, 古島和雄, 西嶋定生, 堀敏一, 古賀登, 池田溫 등이 참석했고, 범의에서 東京學派에 속하는 九州大學에서는 鈴木俊, 日野開三郎, 菊池英夫 등이 참여했다. 반대로 京大에서는 田村實造, 池田誠, 河地重造, 西村元佑, 川勝義雄, 谷川道雄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池田熊一, 「菊池英夫教授年譜および著作目録」, p. 199.)

52) 학문분야 외에 1960년 三池爭議, 1961년 9회 原水爆禁止 世界大會에 참석하는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도 했다(中村政則, 『戰後史』, 東京: 岩波書店, 2005, pp. 77-78; 池田熊一, 「菊池英夫教授年譜および著作目録」, p. 200.)

53) 菊池英夫, 「五代禁軍の地方駐屯に就いて」, 『東洋史學』 11, 1954; 菊池英夫, 「五代禁軍に於ける侍衛親軍司の成立」, 『史淵』 70, 1957.

54) 菊池英夫, 「唐府兵制の成立過程と北衙禁軍の起源」, 『東洋史學』 13, 1955; 菊池英夫, 「唐代兵募の性格と名稱について」, 『史淵』 67-68, 1956; 菊池英夫, 「唐代邊防機關としての守捉城鎮の成立過程について」, 『東洋史學』 27, 1964.

55) 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 『東洋學報』 44-2, 1961; 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 『東洋學報』 45-1, 1962.

騎團, 즉 團結兵이 설치된 것은 濱口의 說과 달리 부병제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 河北에서 부병제가 정비되지 않았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⁵⁶⁾ ④ 부병제에서 新兵制로의 이행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변화라 말할 수 없으며, 신병제도 징병제적 요소가 존재한다.⁵⁷⁾ 즉, 그들의 논점은 府兵制 보다는 新兵制라 일컬어지는 唐 중기에서 宋代에 이르는 軍制의 전개과정에 주목하는 東大 출신 연구자들(周藤吉之, 堀敏一)과 일맥상통한다.⁵⁸⁾

특히 菊池英夫는 사료에 대한 비판과 부병제 조직의 세부 실태에 천착하여, 唐代 府兵制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그는 『玉海』에 인용된 『唐會要』와 현재 전해지는 『唐會要』 사이의 “不置府兵” 구절의 유무를 근거로 당대 부병제를 부정하는 試論을 발표했다.⁵⁹⁾ 비록 독창적인 결론은 없었지만, 그의 후속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사료비판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西魏의 二十四軍과 唐代 府兵制와의 관련성에 깊은 회의를 밝히는 논문으로 이어진다.⁶⁰⁾

한편, 菊池英夫의 연구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團’이라는 군제인데 이는 스승인 日野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⁶¹⁾ 菊池의 연구는 西魏 二十四軍의 말단인 ‘團’에 대한 연구사정리와

56) 菊池英夫, 「唐代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 『史淵』 58, 1953.

57) 栗原益男, 「府兵制の崩壊と新兵種—前半期唐朝支配の崩壊に關する若干の考察をふくめて(一)—」, 『史學雜誌』 73-2, 1964; 栗原益男, 「府兵制の崩壊と新兵種—前半期唐朝支配の崩壊に關する若干の考察をふくめて(二)—」, 『史學雜誌』 73-3, 1964.

58) 周藤吉之, 「五代節度使の牙軍に關する一考察—部曲との關聯におい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2, 1951; 堀敏一, 「五代宋初における禁軍の發展」, 『東洋文化研究所紀要』 4, 1953; 堀敏一, 「藩鎮親衛軍の權力構造」, 『東洋文化研究所紀要』 20, 1960.

59) 菊池英夫, 「唐代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 pp. 96-113-114.

60) 菊池英夫, 「府兵制度の展開」, p. 407.

61) 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 『東洋學報』 44-2, 1961; 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 『東洋學報』 45-1, 1962.

존재형태의 실증으로 이어진다. 서위의 부병조직인 儀同府와 團의 통속관계에 대해 “1團 밑에 2개의 儀同府가 존재하며, 총 96의 儀同三司가 있다”는 기존 濱口의 說⁶²⁾을 뒤집고 오히려 團은 儀同府의 하부조직이며, 開府의 권한은 開府儀同三司와 儀同三司 모두 지니고 있었다는 설을 정립했다.⁶³⁾ 이후 그는 團結兵의 源流를 바로 이 團에서 찾게 되는데, 그의 논리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西魏時代 二十四軍의 團은 西魏·隋代 戰時行軍組織이었으며,⁶⁴⁾ 西域 出土文書에서도 병사의 부대편제단위를 규정하고 있는 ‘團’이라는 용례가 빈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대까지 이러한 ‘團’이 존재했고 이것이 바로 ‘團結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⁶⁵⁾ 團結兵이 藩鎮의 주요 兵源 가운데 하나였음은 日野開三郎의 주요 논지 중 하나이다. 菊池英夫의 府兵制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연구 경향 가운데 하나가 바로 東京學派의 寄生官僚說에 근거한 鄉兵≠府兵, 즉 鄉兵은 兵戶的 존재로 이해하고, 府兵은 개별인신적지배가 행해졌던 編戶民이라는 것이다.⁶⁶⁾ 요컨대 菊池英夫는 唐代 府兵의 위상을 저평가함으로써, 團結兵이 어떻게 藩鎮體制로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菊池英夫의 입장은 西魏 二十四軍 → 隋代 行軍 → 唐代 團結兵 → 唐末 藩鎮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서 ‘團’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團’이 府兵制보다 西魏~唐末의 본질적인 軍制였다는 것이다.

62) 濱口重國, 「西魏의二十四軍と儀同府」, 『東方學報』 8-9, 1938-1939.

63) 菊池英夫, 「西魏二十四軍의『團』을めぐ는從來의諸說とその檢討」, 『史朋』 20, 1986, p. 12.

64) 菊池英夫, 「北朝隋의二十四軍制度における『團』」,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 中國社會制度·文化史의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p. 246.

65) 菊池英夫, 「西域出土文書に見える唐代軍制關係用語としての『團』について(その二)」, 『アジア史における制度と社會』, 東京: 刀水書房, 1996.

66) 菊池英夫, 「北朝軍制に於ける所謂鄉兵について」, 『(重松先生古稀記念)九州大學東洋史論叢』, 九州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1957.

1986년 「西魏二十四軍の『團』をめぐる従來の諸説とその検討」을 발표한 이래로 2000년까지 團과 관련된 논문만 9편을 발표할 정도로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⁶⁷⁾

반대 진영에서 논쟁에 참여한 학자는 谷川道雄(1925-2013)이다. 1948년 京大를 졸업하고, 「隋唐帝國形成史論」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谷川道雄은 名古屋大學을 거쳐, 1978년부터 京大 교수로 재직한 京都學派의 중진이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현실 속에서 그는 무기력한 학부생활을 보냈다고 술회한다.⁶⁸⁾ 1945년 3월 미 공군의 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가 파괴되었다. 대학 입학일인 1945년 4월 1일은 미군이 泮繩에 상륙한 날이었으며, 그는 같은 해 7월 징집되어 福岡에서 복무하다가 종전으로 복학했다. 복학 후에도 인플레이션, GHQ의 행정지배 외에도 특히 군대를 중핵으로 했던 天皇 중심의 국가체제의 해체는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21살의 청년 谷川道雄에게 대학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고뇌, 국가의 장래 등은 무거운 과제였다.

그러나 “더이상 戰後는 아니다”로 상징되는 1950년대 중반 일본경제의 정상화는,⁶⁹⁾ 谷川道雄에게도 연구의 전기가 되었다. 심취했던 유물사관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사회적 상황과 이에 대한 회의감으로 그는 隋唐時代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정리했다고 술회하며, 이때 고민했던 문제의식이 隋唐帝國의 원류에 대한 문제였다.⁷⁰⁾ 그 결과 谷川道雄은 府兵制 제도 자체에 대한 해명보다는 그 역사적인 의미, 즉 수당제국을 형성한 動因

67) 池田熊一, 「菊池英夫教授年譜および著作目録」, pp. 205-207 참조.

68) 이하 谷川道雄, 『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歴史との對話の記録—』, 名古屋: 河合文化教育研究所, 2003, pp. 13-18 참조.

69) 清水一彦, 「『もはや「戰後」ではない』という社會的記憶の構成過程」, 『江戸大學紀要』 25, 2015, pp. 195-206.

70) 谷川道雄, 『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 pp. 24-26, 41-43.

으로서 부병제를 연구하고자 했다.

谷川道雄은 北魏의 분열을 隋唐帝國 형성의 기점으로 이해하며, 六鎮의 亂에 주목했다. 그의 논점은, 六鎮의 亂은 北魏의 門閥貴族制에 대한 遊牧部族 共同體(遊牧民族)와 지역 共同體(漢族 鄉兵)의 저항이었으며, 두 종류의 공동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國家를 형성하는 큰 흐름을 만들었으며, 그 결합체가 바로 西魏·北周의 二十四軍制, 즉 府兵制라는 것이다.⁷¹⁾ 이러한 府兵制의 反門閥性과 새로운 국가질서의 출현은 일찍이 谷川의 스승 宮崎市定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宮崎는 府兵制의 최상층인 八柱國에 관해 “北周에서 隋唐에 이르는 동안 종래의 漢人 貴族과는 완전히 다른 계통의 문벌이 갑자기 성립했던 것”이라고 이해한 바 있다.⁷²⁾

반면, 菊池英夫는 鄉兵은 결국 隸屬民으로서 部曲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西魏의 鄉兵과 府兵制의 관계를 부정했다. 결국 양 진영의 대립점은 鄉村에 산재했던 鄉民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谷川道雄은 지역 공동체의 명망가로서 豪俠性이 풍부한 鄉帥를 따라 주체적인 의지로 결집된 鄉人兵士가 바로 鄉兵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⁷³⁾ 그는 府兵의 입신 사례를 모아, 鄉兵은 隸屬民도 아니며, 강제로 府兵이 된 것이 아니라 한낱 민중도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갖고 從軍하여 공을 세워 출세할 수 있는, 즉 자발적으로 豪族을 따라 출전했던 것으로 분석했다.⁷⁴⁾ 鄉兵의 精神은 反門閥主義이며, 이러한 지

71) 谷川道雄, 「北魏末の内亂と城民」, 『史林』 41-3-5, 1958; 谷川道雄, 「武川鎮軍閥の形成」,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8, 1982; 谷川道雄은 사회의 구성원리로서 계급관계보다 共同體 내부의 豪族과 自立民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서는 川勝義雄·谷川道雄, 「中國中世史研究における立場と方法」, 中國中世史研究會 編, 『中國中世史研究』 東京: 東海大學出版會, 1970, pp. 10-16 참조.

72) 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研究』, 京都: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56, pp. 489-497.

73) 谷川道雄, 「北朝末期の郷兵について」, 『東洋史研究』 20-4, 1962.

향 위에 胡·漢 협력관계를 실현한 西魏·北周·隋·唐이 공통의 계통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⁷⁵⁾

谷川道雄은 부병제의 제도적 이해는 대체로 濱口重國의 이론을 따랐으며, 아울러 1970년 제출된 菊池英夫의 연구에 대해 2차 논쟁을 전개한다. 谷川の 반론은 覇府와 鄉兵의 연결점은 혁명 의지로 결집된 것이며, 부병의 명칭을 都督制에서 찾는 菊池의 견해를 “都督制의 잔상을 통해 唐末 藩鎮으로 연결시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⁷⁶⁾ 이후 谷川은 공동체 이론에 입각하여 부병제를 非門閥의 豪族層의 정치적 진출의 기반으로서 이해하고, 隋唐時代의 공동체를 府兵制國家라고 규정했다.⁷⁷⁾ 즉, 宇文泰의 과제는 東魏·南朝에 열세였던 西魏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府兵制의 창설이라는 것이다. 결국 隋唐帝國을 탄생시킨 원동력으로서 府兵制는 均田制와 함께 隋唐律令體制의 양대지주 중 하나였다는 것이 谷川道雄의 논점이다.

唐代 軍制史에 대한 戰後 논쟁은 濱口重國의 연구에 기반한 谷川道雄과 日野開三郎의 연구를 확장하여 府兵制를 소극적으로 평가했던 菊池英夫의 논쟁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府兵制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唐 後期 藩鎮에 대한 논쟁은 사실 軍制史의 중심 논제가 되지는 않았다.⁷⁸⁾ 연구를 개척한 日野開三郎도 藩鎮을 軍제사의 관점에서만 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藩帥가 겸임하는 민정관직인 觀察使에 대한

74) 谷川の 府兵制論에 대한 입장은 谷川道雄, 『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歴史との對話の記録—』, pp. 50-55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75) 谷川道雄, 「北朝鄉兵再論—波多野教授の軍閥研究に寄せ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19, 1972.

76) 谷川道雄, 「府兵制國家と府兵制」, 『律令制—中國朝鮮の法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1986, pp. 430-435.

77) 谷川道雄, 「府兵制國家論」, 『龍谷大學論集』 443, 1993.

78) 藩鎮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 정리는 鄭炳俊, 「唐末五代 藩鎮體制에 대한 研究史的 考察」, 『中國學報』 40, 1999 참조.

專論이라든지⁷⁹⁾, 兩稅法이 번진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⁸⁰⁾ 등에서 日野가 번진체제를 사회·경제·관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支那中世の軍閥』은 군제사가 아닌 경제사 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를 남겼다고 평한 논자도 있었다.⁸¹⁾

이러한 배경에서 戰後 藩鎮 연구는 정치·경제사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었지만, 日野를 중심으로 東大 출신 혹은 그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一群의 연구자들에 의해 藩鎮體制 연구가 일정한 계통성을 유지하며 진행되었다. 菊池英夫는 唐代 府兵制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府兵制에서 節度使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團結兵을 중심으로 천착했다.⁸²⁾ 스승인 日野가 밝혀 내지 못한 번진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그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의문을 품고 이를 단결병에서 찾음으로써 日野의 說을 보충한 것이다. 堀敏一은 논리 및 실증이 부족했던⁸³⁾ 日野의 연구를 보충하며, 번진에 대한 劃期를 설정하여 宋 이후를 중세로 보는 근거 중 하나로서 번진체제를 접근했다.⁸⁴⁾ 栗原益男은 日野의 연구의 공백 중 하나인 번진 내부의 결합관계에 천착하는

79) 日野開三郎, 「觀察處置使について—主として大曆末まで—」, 『唐代兩稅法の研究 前篇』(『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3), 東京: 三一書房, 1981.

80)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pp. 111-119.

81) 栗原益男, 「(書評)日野開三郎 著 「支那中世の軍閥」 『史學雜誌』 54-6, 1943, p. 110.

82) 菊池英夫, 「唐代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 『史淵』 58, 1953; 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 『東洋學報』 45-1, 1962; 菊池英夫, 「北朝隋の二十四軍制度における『團』」,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83) 初版되었던 『支那中世の軍閥—唐代藩鎮の研究—』은 각주 하나 없는 일종의 연구 노트에 가까웠다. 재출간된 日野開三郎, 『唐代藩鎮の支配體制』(『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I), 東京: 三一書房, 1980에서는 唐代藩鎮의 成立과 盛衰라는 부제로 그 동안의 비판을 수용하여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84) 堀敏一,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東京: 汲古書院, 2002.

작업⁸⁵⁾과 藩鎮體制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연표를 정리했다.⁸⁶⁾

반면 京都學派 宮崎市定과 礪波護는 ‘財政國家論’⁸⁷⁾에 입각하여 國家體制의 전환으로서 藩鎮을 설명하려는 시도와 藩鎮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했다.⁸⁸⁾ 이는 藩鎮과 朝廷을 대립관계로 도식화했던 東京學派에 대한 비판으로서, 오히려 국가권력을 보조했던 藩鎮의 적극적인 모습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藩鎮과 唐朝의 共存을 모색함으로써 번진을 왕조의 지배체제 중 하나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⁸⁹⁾

4. 戰後世代의 均제사 연구의 특징

唐代 軍制史 연구에서 두각을 보이는 戰後세대 연구자는 氣賀澤保規(1943-)이다. 그는 1986년부터 발표한 西魏에서 唐에 이르는 府兵制의 발전과정을 논한 여러 논문을 엮어 1999년 『府兵制の研究』(京都: 同朋舎)를 출판하며, ‘兵民分離’라는 새로운 관

85) 栗原益男, 「唐五代의 假父子的結合의 性格—主として 藩帥의 支配權力との關連において—」, 『史學雜誌』 62-6, 1953; 栗原益男, 「唐末五代의 變革—その 適及的考察をふくめて—」, 『歴史教育』 12-5, 1964.

86) 「五代宋初藩鎮年表」라는 제목의 기초적인 연구성과를 1965년(『上智史學』 10)부터 1988년(『上智史學』 33)까지 연속 게재했다. 그리고 이를 집대성하여 『五代·宋初藩鎮年表』(東京堂出版, 1988)을 출간했다.

87) 宮崎市定, 『大唐帝國—中國の中世—』, 東京: 中央公論社, 1988; 礪波護, 「唐の律令體制と宇文護の括戸」, 『東方學報』 41, 1970.

88) 大澤正昭, 「唐末の藩鎮と中央權力—德宗憲宗期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32-2, 1973.

89) 元和年間の 정치적 안정화의 배경 중 하나로 唐朝와 江淮藩鎮의 상호 협력관계를 꼽을 수 있다(中砂明德, 「後期唐朝の江淮支配—元和時代の一側面—」, 『東洋史研究』 47-1, 1988.)

점을 제기함으로써 1990년대 다소 침체되어 있던 학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氣賀澤은 京大를 졸업하고, 1996년 『府兵制の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도교수는 귀족제 논쟁을 주도하고 공동체이론을 제창한 川勝義雄(1922-1984)이다. 氣賀澤의 연구에 또 다른 영향을 준 인물로는 谷川道雄을 꼽을 수 있는데, 谷川은 川勝의 京大 후배이자 “연구상의 盟友”였다.⁹⁰⁾

氣賀澤保規의 府兵制 연구는 谷川道雄을 계승했는데, 谷川은 부병의 위상을 논하면서 中男을 入軍시키는 案에 대한 魏徵의 反對論은 “명예로운 전사로서 위치를 보증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규정한 바 있다.⁹¹⁾ 그리고 “府兵制는 隋 開皇 10年(590)을 즈음하여 兵民分離에서 兵民一致로 이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의 표면이며, 唐의 兵民一致 속에서도 兵民分離의 흔적이 인정되는 것이 있으며, 부병제의 본질은 兵民分離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다.⁹²⁾ 이러한 谷川道雄의 견해를 계승·발전시켜 氣賀澤保規는 “이것은 상당히 한발 내딛었던 발언이며, 필자가 생각한 것에 가까우며, 이후의 구체적인 논증에 주목하고 싶다”고 『府兵制の研究』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⁹³⁾ 요컨대 隋 開皇 10年詔에 대한 谷川의 견해, 즉 兵民一致(兵農一致)의 시도였지만, 결국 “軍府統領, 宜依舊式”했다는 점을⁹⁴⁾ 계승하여 氣賀澤은 일관되게 ‘兵民分離’였다는 입장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唐代 府兵制에 대해서 종래 소수 의견으로 岑仲勉만이 ‘兵民分

90) 谷川道雄, 『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 p. 91.

91) 谷川道雄, 「府兵制國家と府兵制」, p. 438.

92) 谷川道雄, 「府兵制國家論」, pp. 7-8.

93) 氣賀澤保規, 「前期府兵制研究序說—その成果と論點をめぐって—」, 『府兵制の研究』, 東京: 同朋舎, 1999, p. 58 注16(이하 氣賀澤保規의 논문은 앞의 연구서에서 인용.)

94) 谷川道雄, 「府兵制國家論」, p. 5.

離'를 주장했지만,⁹⁵⁾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체로 濱口重國의 선구적 연구를 따르고 있다. 濱口의 연구 이후 반세기 이상 일본에서 府兵制 研究에 대한 專著가 출판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러한 연구상황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해 氣賀澤保規는 ① 系統的 연구의 부족, ② 國家權力에 중점을 두어 全體像을 규명하지 못했던 점, ③ 府兵制가 존재했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했다.⁹⁶⁾ 唐代 府兵制로 한정하자면, 氣賀澤의 논점은 唐代 府兵은 '兵士'라는 특수한 신분이었으며, 農民보다 양호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兵農一致로 이해한 선행 연구에서도, 제도의 입안과정에서는 병역 부담의 균등성이 전제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상 府兵의 부담은 과중했고 그 결과 府兵의 지위가 저하되었다는 견해⁹⁷⁾, 과중한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地主階級의 필연적 탄생을 전제한 입장⁹⁸⁾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氣賀澤保規는 唐代 軍防令의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략 500里 5番을 기준으로 京師로 上番하는 府兵과 인근에 설치된 都督府로 上番하는 府兵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府兵의 과중한 부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⁹⁹⁾ 그리고 出土文書를 분석한 결과 “衛士라는 명칭은 中央의 禁衛에 속한 병사로서 사회적 영예와 특권을 지닌 호칭이며, 그것으로 兵士와 軍府를 中央에서 일원적으로 계속 연결시켜주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녔다”라고 부병의 지위를 논증

95) 岑仲勉, 『府兵制度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57.

96) 氣賀澤保規, 『府兵制の研究』, pp. 1-5.

97)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p. 37-49.

98) 日野開三郎, 「大唐府兵制時代に於ける團結兵の稱呼とその普及地域」, 『史淵』 61, 1954; 栗原益男, 「府兵制の崩壊と新兵種: 前半期唐朝支配の崩壊に關する若干の考察をふくめて(一)」, 『史學雜誌』 73-2:3, 1964; 菊池英夫, 「中國軍制史の基本的視點」, 『歴史評論』 250, 1971.

99) 氣賀澤保規, 「唐代府兵制における府兵兵士の位置」, pp. 290-307.

했다.¹⁰⁰⁾ 즉, ‘兵(軍人)’이 ‘民’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았고, 그 특권으로서 필연적으로 ‘民’보다 부담이 가벼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일반민과 구별되는 ‘軍’의 존재가 바로 ‘중세적인 특질’이라는 것이다.¹⁰¹⁾ 궁극적으로 氣賀澤은 唐代 府兵을 일본 중세의 사무라이 계급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특권 계층으로 상정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역사발전 과정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⁰²⁾

다소 과감한 입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氣賀澤保規의 연구에 대한 몇 편의 서평을 제외하고¹⁰³⁾ 본격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氣賀澤 역시 연구서의 출간 이후 연구 관심을 石刻資料와 佛敎史로 전환했다. 이러한 현상은 영성한 사료, 부병제 연구의 축적 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戰後세대의 군제사 연구의 특징 속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戰後세대의 군제사 연구의 특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연구자가 石田勇作(1948-)이다. 그는 東京學藝大學에서 학부를 마치고 上智大學 大學院에서 栗原益男의 지도를 받았다. 주목할 사실은 3장에서 살펴본 전쟁세대들의 논쟁과 달리 戰後세대에서는 연구의 계보가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石田勇作은 唐代 府兵의 부담을 둘러싸고 東大 출신의 布目潮颯(1919-2001)과 격렬한 논쟁을

100) 氣賀澤保規, 「唐代西州における府兵制の展開と府兵兵士」, p. 323.

101) 다만, 氣賀澤保規의 용어 사용은 다소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는 “府兵兵士는 그 개개인(및 그의 가족)은 兵農一致의 산업활동에 종사하지만, 사회전체 속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는 兵民分離의 원칙에 입각하여 존재하고 있었다. 그 兵農一致와 兵民分離의 並存, 그것이야말로 府兵制의 本質에 관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 바 있다(氣賀澤保規, 「府兵制史再論」, pp. 424-425.)

102) 氣賀澤保規, 「研究フォーラム新府兵制論: 唐代史の新たな理解のために」, 『歴史と地理』 574, 2004, pp. 50-54.

103) 石田勇作, 「(書評)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駿台史學』 109, 2000; 山口正晃, 「(書評·新刊紹介)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唐代史研究』 3, 2000.

전개한 바 있는데, 石田勇作의 지도교수 栗原益男(1942년 東大卒)은 布目潮颯(1943년 東大卒)의 師兄에 해당한다.¹⁰⁴⁾

논쟁의 쟁점은 『新唐書』 「兵志」와 『唐六典』 卷6 「尙書兵部」에 각각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衛士의 京師 上番規定 중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었다.¹⁰⁵⁾ 府兵制 관련 사료의 영성함과 史書 사이의 기록차이는 研究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¹⁰⁶⁾ 결과적으로 布目潮颯은 府兵의 부담이 과중했다는 濱口重國의 기존 입장을 변호했고, 반면 石田勇作은 府兵의 부담이 일반농민의 그것에 비해 과중하지 않았다는 입장

104) 栗原益男, 布目潮颯의 약력에 대해서는 각각 堀敏一, 「栗原益男先生年譜著作目錄」, 『(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中國古代の法と社會』, 東京: 汲古書院, 1988, pp. 3-5; 中村裕一, 「布目潮颯博士略年譜」, 『布目潮颯中國史論集』 下, 東京: 汲古書院, 2004, p. 431 참조; 한편 石田의 약력은 上掲한 『(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中國古代の法と社會』와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東京: 中國書店, 1987)의 집필자 소개를 참조.

105) 布目潮颯은 衛士上番에 관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규정된 『唐六典』의 기록을 따라, 濱口重國의 說인 150日(2500-3000里 衛士의 연간 부담일수)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그가 府兵의 부담문제를 제기한 것은 律令體制하의 一般民丁과 府兵 모두 동일한 부담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과약하고자 했던 추상성을 증명하고자한 데 있다(布目潮颯, 「唐代衛士番上の負擔」, 『(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東京: 山川出版社, 1972; 布目潮颯, 「唐代衛士番上の負擔再論—石田勇作氏の「唐府兵負擔攷」を讀みて—」, 『(三田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京都: 立命館大學人文學會, 1980.) 한편 石田勇作은 史書의 편찬시점을 문제삼아 『新唐書』의 기록에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했다. 아울러 衛士上番과 防人負擔(防人の在役期間 3년을 衛士의 1년으로 환산)을 합한 府兵의 부담률을 非軍府州 丁男의 賦役負擔率과 비교하여, 양자의 부담률의 균일성을 수치화를 통해 논증했다. 그의 결론은 唐의 律令支配體制의 '個別人身的' 또는 '均等的支配'의 특질이 府兵制에서도 일관되게 보인다는 것이다(石田勇作, 「唐府兵負擔考—律令法規から見たる—」, 『上智史學』 24, 1979.)

106) 府兵制 관련 사료에 대한 문제는 7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예컨대 菊池英夫는 『鄴侯家傳』의 기록을 문제삼아 府兵制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西魏 府兵制'는 당후반기 祖法의 부흥과 北周·隋·唐의 지배층의 동질성을 과도하게 해석한 점을 지적했다(菊池英夫, 「府兵制度の展開」, pp. 410-411.) 史料의零星함에 대해서는 谷川道雄, 「西魏·北周·隋·唐政權と府兵制」, 『中國律令制の展開とその國家·社會と關係(唐代史研究會報告)5』, 東京: 刀水書房, 1984, p. 144 참조.

을 제기했다. 사실상 濱口重國이 京都學派의 입장을 계승·전수했다는 점에서 東大 출신의 布目이 濱口の 설을 지지했던 사실은 3장에서 보이는 평행선을 달리던 東京學派와 京都學派 양 진영의 논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石田 역시 師淑과 논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전쟁세대의 계통적인 논쟁과는 구별된다.

2차 논쟁에서 石田은 折衝府의 偏重이나 府兵의 負擔에 의한 民亂이 없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¹⁰⁷⁾, 府兵制 붕괴의 원인을 武后 집권이후 정국의 변화에서 찾을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唐의 律令支配體制가 관념적·추상적인 것이었는가(布目) 아니면 현실적으로 구현되었는가(石田)에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이다. 한편, 石田은 氣賀澤의 연구에 대해서도 ‘兵·民’, ‘農·兵’의 개념 구별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新唐書』 「兵志」에 매년 冬季(즉, 農閑期)에 부병이 군사훈련을 행했다는 것으로부터 兵農一致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영이라고 비판했다.¹⁰⁸⁾ 이러한 주장의 내면에는 만약 兵民이 分離되었다는 氣賀澤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均田制를 통한 唐朝의 농민에 대한 ‘個別人身的支配’說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氣賀澤과 同門인 山口正晃은 전공분야가 魏晉南朝 都督制임에도 불구하고¹⁰⁹⁾, 氣賀澤의 입장을 변호하는 서평을 제출하며 石田의 비판에 반비판을 가한다. 그의 논리는 농경사회에서는 農耕이 일반적인 생활수단이었으며, 전문병사인 ‘兵’(그 가족도 포함)이 府兵으로 揀點되지 않는 자인 ‘民’(그 가족도 포함)과 생활환경이 달랐다는 점이 더

107) 石田勇作, 「唐府兵負擔についての再考」,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pp. 261-262 <表> I-II.

108) 石田勇作, 「(書評)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 p. 180.

109) 山口正晃은 2004년 「魏晉南朝における都督制」라는 논문으로 京大에서 博士學位를 받았으며, 현재 大手前大學 准教授를 맡고 있다.

욱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¹¹⁰⁾

한편 戰後세대들의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그들이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개별 연구에 치중한다는 지적은 일찍이 제기되었다.¹¹¹⁾ 예컨대 辻正博(1961-)은 河北三鎮으로 藩鎮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憲宗의 河南藩鎮 順地化를 분석한 바 있다.¹¹²⁾ 그러나 참신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辻은 京大 박사과정을 중퇴하는 등 여러차례 부침을 겪다가 敦煌學으로 관심을 옮겼다.¹¹³⁾ 그와 동년배인 中砂明德도 宮崎市定과 礪波護를 계승한 한 편의 문제작을 끝으로¹¹⁴⁾ 자신의 전공분야를 唐에서 宋으로 옮겨 버렸다.¹¹⁵⁾ 비교적 젊은 학자로서 早稻田大學 출신의 平田陽一郎(1973-), 山下將司(1974-) 등이 각각 唐代 府兵制의 개념문제, 소그드인들의 軍府官 임명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¹¹⁶⁾ 연구를 통해 규명하려는 논점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¹¹⁷⁾ 戰後 세대에게 뚜렷하게 보이는 연구의

110) 山口正晃, 「(書評·新刊紹介)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p. 109.

111) 谷川道雄, 「中國史の時代區分問題をめぐって」, 『史林』 68-6, 1985.

112) 辻正博, 「唐朝の對藩鎮政策について—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 『東洋史研究』 46-2, 1987.

113) 辻正博, 「草創期の敦煌學と日本の唐代法制史研究」, 『草創期の敦煌學—羅·王兩先生東渡 90周年記念日中共同ワークショップの記録—』, 東京: 知泉書館, 2002; 辻正博, 「麹氏高昌國と中國王朝」, 夫馬進 編,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7.

114) 中砂明德, 「後期唐朝の江淮支配—元和時代の一側面—」, 『東洋史研究』 47-1, 1988.

115) 中砂明德, 「劉後村と南宋士人社會」, 『東方學報』 66, 1994; 中砂明德, 「士大夫のノルムの形成—南宋時代—」, 『東洋史研究』 54-3, 1995.

116) 平田陽一郎, 「唐代兵制=府兵制の概念成立をめぐって—唐·李繁『鄴侯家傳』の史料の性格と位置づけを中心に—」, 『史觀』 147, 2002; 山下將司, 「隋唐初の河西ソグド人軍團—天理圖書館藏『文館詞林』「安修仁墓碑銘」殘卷をめぐって」, 『東方學』 110, 2005; 平田陽一郎, 「皇帝と奴官: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 『史滴』 36, 2014; 山下將司, 「北朝末~唐初におけるソグド人軍府と軍團」, 『アジア遊學』 173, 2014.

117) 최근 平田陽一郎과 山下將司는 스승 石見清裕의 영향으로 軍制史보다 民族問題

세분화와 신자료의 발굴도 역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후속 연구를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개별 연구의 누적이 ‘時代의 全體像’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5. 맺음말

唐代 軍制史에 대한 日本 學界의 독특한 연구경향과 논점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世代’라고 하는 시간축과 ‘學派’, 즉 출신학교라고 하는 공간축이 바로 그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世代는 戰爭에 대한 기억의 농도에 근거한다. 전쟁세대에게 軍制史는 ‘是非’를 초월한 ‘生死’의 문제였다. 어뢰 공격으로 척추가 골절되었던 栗原益男, 한 명을 제외한 입대 동기가 모두 戰死했던 日野開三郎, 패전이 임박하여 징집되었던 谷川道雄 등 전쟁을 경험했던 연구자들과 戰後세대의 軍制를 대하는 관점이 상이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전쟁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濱口重國이 “국민의 최대 고통인 兵役”의 문제에 천착했고, 日野開三郎이 唐末 藩鎮과 1930년대 일본의 軍閥을 ‘下剋上’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연구하여 ‘抑藩振朝’라는 역사상 필연적인 법칙을

에 천착하고 있다(平田陽一郎, 「史索巖墓誌」, 石見清裕 編, 『ソグド人墓誌研究』, 東京: 汲古書院, 2016; 平田陽一郎·山下將司, 「「唐·翟天德墓誌」の譯注と考察」, 『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50, 2016; 山下將司, 「安史の亂におけるソグド人李抱玉の事績について」, 『史艸』 59, 2018; 山下將司, 「漢文墓誌より描く六世紀華北分裂期のソグド人」, 『日本女子大學紀要(文學部)』 69, 2019; 山下將司, 「朱耶氏と沙陀三部落: 唐末の代北におけるテュルク・ソグド軍團」, 『メトロポリタン史學』 15, 2019; 平田陽一郎, 「「唐·慕容曦輪墓誌」の譯注と考察」, 『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54, 2020 참조.)

모색하고자 했던 動因도 ‘戰爭’의 기억 때문이었다. 1950년대 이후 열린 時代區分論爭이 촉발된 것도 바로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종래 침략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던 소위 아시아 사회의 停滯論을 극복하고 세계사적 기본법칙을 과제로 삼아 열린 논전이 전개되었다.

시대구분논쟁과 함께 戰後 30여 년간 일본 학계는 실증을 중시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자세를 바탕으로 크게 발전했다. 軍制史 研究가 戰後부터 1980년대까지 활발해진 근본적인 動因도 東京學派와 京都學派 사이에 전개된 論爭에서 비롯되었다. 日本 學界의 軍制史 研究는 ‘學派’, 즉 대학이라는 공간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日本의 주요 大學은 연구자들의 조직과 협조 및 교류를 주도하는 특수한 연구기관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은 다소 색깔이 옅어졌지만 각 대학별로 학술지를 발간하며 연구의 계통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東大에는 東洋文化研究所(舊 東洋文化研究所·東方文化學院 統合)가 있으며, 東大 출신 학자들이 창립 맡기한 학회지로는 『史學雜誌』, 『歷史學研究』 등이 있다. 東洋文庫의 설립에는 白鳥庫吉이 주도적인 역할 담당하기도 했다.

반면, 京大에는 東方文化研究所(1948년 文部省으로 이관), 人文科學研究所 등의 부속 연구기관이 존재하며, 『東洋史研究』는 1935년 京大 문학부 동양사학과에서 창립 맡기한 동양사연구회의 기관지에 해당한다. 그 외 川勝義雄과 谷川道雄의 주도 하에 주로 京都大學과 名古屋大學 출신들이 회원으로 활동했던 中世史研究會는 京都學派的 색채를 비교적 강하게 띠고 있다. 京都學派的 重鎮인 東北大學에서는 『集刊東洋學』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京都學派 혹은 그 영향을 받은 一群의 연구자들은 ‘岡崎文夫→濱口重國→谷川道雄→氣賀澤保規’라는 계통성

을 지니면서 반대편에 서있는 ‘日野開三郎→栗原益男·布目潮瀨·菊池英夫’와 논전을 전개하며 府兵制 연구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菊池英夫는 “大學 教授는 研究者이자 教育者”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¹¹⁸⁾, 이 표현은 근래 일본 학계의 논쟁의 소멸, 문제의식의 공유 부족, 연구의 개별화 등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軍制史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濱口重國과 日野開三郎의 軍制史 研究가 후속 세대에게 계승되는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 배경 중 하나는 濱口는 연구자의 성격이 강했던 데에 반해 日野는 교육자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日野는 평생 백 편이 넘는 논문을 집필하여, 이를 全集 20권으로 출판했다. 이러한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濱口の 精緻한 논증이 돋보이는 「府兵制度より新兵制」보다 12년이나 지나 출간된 日野의 『中國中世の軍閥』은 각주 하나없는 논설에 가까운 글이었다. 日野의 스승인 加藤繁에게 대학시절 실증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던 일화는 고스란히 日野의 自撰年譜에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野의 說은 이후 제자 菊池英夫를 비롯한 東大 출신의 栗原益男, 堀敏一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에 반해 濱口の 연구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제자는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濱口重國은 선구적인 실증적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스승 加藤繁의 영애와 이혼한 이후 東京大, 東北大, 滿鐵調査部 등을 전전하며, 안정적으로 자신의 학설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반면 日野는 1935년 27살의 나이에 九州帝國大學에 부임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菊

118) 菊池英夫, 「獻詞」,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p. 1.

池英夫와 같은 후학을 양성할 수 있었다. 濱口重國의 府兵制 연구와 이를 수용한 谷川道雄의 연구 사이에 약 30년의 시간차가 발생한 배경도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中國史研究가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 學派에 의해 계승·발전되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경향은 이러한 學派의 차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논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은 논쟁의 한 축이었던 東大에 中國史 전공 교수의 부족과 그로 인한 연구자 재생산의 단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戰後세대에서 두드러지는 논쟁의 소멸, 연구의 개별화 등의 문제는 한국 학계에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물론 실증주의적 접근과 새로운 사료를 통한 연구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담한 假設과 소심한 論證’이라는 역사연구의 방법론이 현재 일본 학계에만 해당되는 조언은 아닌 듯하다. 어느 大家의 조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이를 인용하면서 本稿를 마무리하겠다.

사료의 한편 끝에는 역사가의 통찰력과 구상력이 있어야 한다. 그 통찰력과 구상력은 실증주의(positivism)를 뛰어넘어야 생기는 것이다. 감히 고언을 드리자면 최근 수년 동안 연구의 세분화라고 불려진 것은 전망을 가진 세분화가 아니라 목표를 잃은 데서 오는 세분화일지도 모른다.¹¹⁹⁾

119) 谷川道雄, 「總說」, 『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7, p. 28.

(원고투고일 : 2020. 10. 7, 심사수정일 : 2020. 11. 16,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 濱口重國, 日野開三郎, 栗原益男, 谷川道雄, 菊池英夫, 府兵制,
兵募, 節度使, 藩鎮, 軍國主義

<참고문헌>

1. 일본 학계의 唐代 軍制史 논저(필자 생년순)

-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史學雜誌』 41-11, 1930.
_____,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二)」, 『史學雜誌』 41-12, 1930.
_____, 「西魏の二十四軍と儀同府(上)」, 『東方學報』 8, 1938.
_____, 「西魏の二十四軍と儀同府(下)」, 『東方學報』 9, 1939.
_____, 「前漢の南北軍に就いて」, 『(池内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東京: 座右寶刊行會, 1940.
_____, 「魏晉南朝の兵戶制度の研究」, 『山梨大學學藝學部紀要』 2, 1957.
_____, 『秦漢隋唐史の研究』上·下, 東京大學出版會, 1966.
日野開三郎, 「唐·河陽三城節度使考」, 『史淵』 14, 1936.
_____, 「唐·河陽三城節度使考(二·完)」, 『史淵』 17, 1937.
_____, 「唐代藩鎮の跋扈と鎮將(-)」, 『東洋學報』 26-4, 1939.
_____, 「唐代藩鎮の跋扈と鎮將(二)」, 『東洋學報』 27-1, 1939.
_____, 「唐代藩鎮の跋扈と鎮將(三)」, 『東洋學報』 27-2, 1940.
_____, 「唐代藩鎮の跋扈と鎮將(四)」, 『東洋學報』 27-3, 1940.
_____, 『支那中世の軍閥—唐代藩鎮の研究—』, 東京: 三省堂, 1942.
_____, 「大唐府兵制時代に於ける團結兵の稱呼とその普及地域」, 『史淵』 61, 1954.
_____, 「藩鎮時代の州稅三分制について」, 『史學雜誌』 65-7, 1956.
_____, 「藩鎮體制と直屬州」, 『東洋學報』 43-4, 1961.
_____, 『唐代藩鎮の支配體制』(『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 東京: 三一書房, 1980.
周藤吉之, 「五代節度使の牙軍に關する一考察—部曲との關聯におい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2, 1951.
栗原益男, 「(書評)日野開三郎 著「支那中世の軍閥」『史學雜誌』 54-6, 1943.

- 栗原益男, 「唐五代の假父子的結合の性格—主として藩帥的支配權力との關連に
 おいて—」, 『史學雜誌』 62-6, 1953.
- _____, 「府兵制の崩壞と新兵種: 前半期唐朝支配の崩壞に關する若干の考察
 をふくめて(一)」, 『史學雜誌』 73-2, 1964.
- _____, 「府兵制の崩壞と新兵種: 前半期唐朝支配の崩壞に關する若干の考察
 をふくめて(二)」, 『史學雜誌』 73-3, 1964.
- _____, 「唐末五代の變革—その逆及的考察をふくめて—」, 『歴史教育』 12-5,
 1964.
- _____, 『五代·宋初藩鎮年表』, 東京堂出版, 1988.
- 布目潮風, 「唐代衛士番上の負擔」, 『(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東京: 山
 川出版社, 1972.
- _____, 「唐代衛士番上の負擔再論—石田勇作氏の「唐府兵負擔攷」を讀み
 て—」, 『(三田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京都: 立命館大學人文學
 會, 1980.
- _____, 『布目潮風中國史論集』 上, 東京: 汲古書院, 2003.
- 堀敏一, 「五代宋初における禁軍の發展」, 『東洋文化研究所紀要』 4, 1953.
- _____, 「藩鎮親衛軍の權力構造」, 『東洋文化研究所紀要』 20, 1960.
- _____,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東京: 汲古書院, 2002.
- 谷川道雄, 「北魏末の内亂と城民(上)」, 『史林』 41-3, 1958.
- _____, 「北魏末の内亂と城民(下)」, 『史林』 41-5, 1958.
- _____, 「北朝末期の郷兵について」, 『東洋史研究』 20-4, 1962.
- _____, 「北朝郷兵再論—波多野教授の軍閥研究に寄せて—」, 『名古屋大學文
 學部研究論集(史學)』 19, 1972.
- _____, 「武川鎮軍閥の形成」,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8, 1982.
- _____, 「西魏·北周·隋唐政權と府兵制」, 『中國律令制の展開とその國家·社
 會と關係(唐代史研究會報告)5』, 東京: 刀水書房, 1984.
- _____, 「府兵制國家と府兵制」, 『律令制—中國朝鮮の法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1986.
- _____, 「府兵制國家論」, 『龍谷大學論集』 443, 1993.

- 菊池英夫, 「唐代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 『史淵』 58, 1953.
- _____, 「五代禁軍の地方駐屯に就いて」, 『東洋史學』 11, 1954.
- _____, 「唐府兵制の成立過程と北衙禁軍の起源」, 『東洋史學』 13, 1955.
- _____, 「唐代兵募の性格と名稱とについて」, 『史淵』 67-68, 1956.
- _____, 「五代禁軍に於ける侍衛親軍司の成立」, 『史淵』 70, 1957.
- _____, 「北朝軍制に於ける所謂郷兵について」, 『(重松先生古稀記念)九州大學東洋史論叢』, 九州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1957.
- _____,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 『東洋學報』 44-2, 1961.
- _____,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 『東洋學報』 45-1, 1962.
- _____, 「唐代邊防機關としての守捉城鎮の成立過程について」, 『東洋史學』 27, 1964.
- _____, 「府兵制度の展開」, 『岩波講座 世界歴史』 5, 東京: 岩波書店, 1970.
- _____, 「中國軍制史の基本的視點」, 『歴史評論』 250, 1971.
- _____, 「西魏二十四軍の『團』をめぐる従來の諸説とその検討」, 『史朋』 20, 1986.
- _____, 「北朝隋の二十四軍制度における『團』」,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 _____, 「西域出土文書に見える唐代軍制關係用語としての「團」について(その二)」, 『アジア史における制度と社會』, 東京: 刀水書房, 1996.
- 氣賀澤保規, 「前期府兵制研究序説—その成果と論點をめぐって—」, 『法制史研究』 42, 1992.
- _____, 「唐代府兵制における兵士の位置—中國中世的兵士の—形態として」, 『中國中世史研究(續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1995.
- _____, 「唐代西州における府兵制の展開と府兵兵士」, 『東洋史研究』 56-3, 1997.

- 氣賀澤保規, 『府兵制の研究』, 東京: 同朋舎, 1999.
- _____, 「研究フォーラム新府兵制論: 唐代史の新たな理解のために」, 『歴史と地理』 574, 2004.
- 石田勇作, 「唐府兵負擔考—律令法規からみたる—」, 『上智史學』 24, 1979.
- _____, 「唐府兵負擔についての再考」,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 _____, 「(書評)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駿台史學』 109, 2000.
- _____, 「(書評·新刊紹介)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唐代史研究』 3, 2000.
- 平田陽一郎, 「唐代兵制=府兵制の概念成立をめぐる—唐·李繁『鄴侯家傳』の史料性格と位置づけを中心に—」, 『史觀』 147, 2002.
- _____, 「皇帝と奴官: 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 『史滴』 36, 2014.
- 山下將司, 「隋唐初の河西ソグド人軍團—天理圖書館藏『文館詞林』「安修仁墓碑銘」殘卷をめぐる—」, 『東方学』 110, 2005.
- _____, 「北朝末~唐初におけるソグド人軍府と軍團」, 『アジア遊學』 173, 2014.

2. 학술사 관련 논저

- 菊池英夫, 「濱口重國(1901~1981)」, 今谷明 等 編, 『20世紀の歴史家たち』 2, 東京: 刀水書房, 1999.
- 鈴木一郎, 「(回想)濱口重國先生」, 『東北學院大學論集』(歴史學地理學) 38(史學科創立40周年記念特輯號), 2005.
- 日野開三郎, 「日野開三郎博士自撰年譜」,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 堀敏一, 「栗原益男先生年譜著作目録」, 『(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中國古代の法と社會』, 東京: 汲古書院, 1988.

中村裕一, 「布目潮瀨博士略年譜」, 『布目潮瀨中國史論集』下, 東京: 汲古書院, 2004.

谷川道雄, 『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歴史との對話の記録—』, 名古屋: 河合文化教育研究所, 2003.

池田熊一, 「菊池英夫教授・山崎利男教授の古稀の雅齡を祝う」, 『(中央大學文學部史學科)紀要』45, 2000.

閔斗基 編, 『中國史時代區分論』,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4.

<http://uci.or.kr/G701:B-00047829928>

內藤虎次郎, 『支那近世史』, 神田喜一郎・內藤乾吉 共編, 『內藤湖南全集』10, 東京: 筑摩書房, 1969(原刊: 『中國近世史』, 東京: 弘文堂, 1947.)

內藤湖南研究會, 『內藤湖南の世界—アジア再生の思想』, 名古屋: 河合文化教育研究所, 2001.

小松浩平, 「內藤湖南における東アジア觀の再檢討」, 『教育論叢』55, 2012.

楊棟梁, 「在學識與良知之間——國策學者內藤湖南的‘支那論’」, 『史學月刊』2014-7.

加藤繁, 「支那と武士階級」, 『史學雜誌』50-1, 1939.

宮崎市定, 『東洋における素朴主義と文明主義の社會』, 東京: 富山房, 1940.

川勝義雄・谷川道雄, 「中國中世史研究における立場と方法」, 中國中世史研究會編, 『中國中世史研究』東京: 東海大學出版會, 1970.

谷川道雄, 「中國史の時代區分問題をめぐって—現時點からの省察—」, 『史林』68-6, 1985.

_____, 「總說」, 『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7.

張國剛, 「唐代府兵制的演變與中古社會變遷」, 『中國社會科學』2006-4.

3. 일본 근현대사 관련 논저

하정열,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일본자위대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팔복원, 2004.

<http://uci.or.kr/G901:A-0008566299>

한상일, 『日本 軍國主義의 形成過程』, 서울: 한길사, 1982.

<http://uci.or.kr//G901:A-0008370089>

加藤陽子, 『徵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東京: 吉川弘文館, 1996.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3322429>

藤原彰, 『日本軍事史』, 東京: 日本評論社, 1987.

<http://uci.or.kr//G901:A-0008651803>

須山幸雄, 『天皇と軍隊』, 東京: 芙蓉書房, 1985.

雄谷光久, 『日本軍の人的問題と問題點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87.

<http://uci.or.kr//G901:A-0008414272>

伊香俊哉, 『滿洲事變から日中全面戰爭へ』(『戰爭の日本史』 22), 東京: 吉川弘文館, 2007.

中村政則, 『戰後史』, 東京: 岩波書店, 2005.

清水一彦, 「もはや「戰後」ではない」という社會的記憶の構成過程, 『江戸大學紀要』 25, 2015.

4. 기타

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研究』, 京都: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56.

_____, 『大唐帝國—中國の中世』, 東京: 中央公論社, 1988.

岑仲勉, 『府兵制度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57.

鄭炳俊, 「唐末五代 藩鎮體制에 대한 研究史的 考察」, 『中國學報』 40, 1999.

張國剛, 「唐代藩鎮類型及其動亂特點」, 『歷史研究』 1983-4.

王授朝, 「唐代藩鎮分類芻議」, 『唐史論叢』 5, 西安: 三秦出版社, 1990.

胡戟, 「藩鎮問題」, 『二十世紀唐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日野開三郎, 「五代の沿徽に就いて」, 『史淵』 13, 1936.

_____, 「五代藩鎮の券絲絹と北宋朝豫買絹」, 『史淵』 15-16, 1937.

_____, 「唐代便換考」, 『史淵』 22, 1939.

_____, 「觀察處置使について—主として大曆末まで—」, 『唐代兩稅法の研究 前篇』(『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3), 東京: 三一書房, 1981.

- 礪波護, 「唐の律令體制と宇文護の括戸」, 『東方學報』 41, 1970.
- 大澤正昭, 「唐末の藩鎮と中央權力—德宗憲宗期を中心とて—」, 『東洋史研究』 32-2, 1973.
- 辻正博, 「唐朝の對藩鎮政策について—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 『東洋史研究』 46-2, 1987.
- _____, 「草創期の敦煌學と日本の唐代法制史研究」, 『草創期の敦煌學—羅·王兩先生東渡90周年記念日中共同ワークショップの記録—』, 東京: 知泉書館, 2002.
- _____, 「麴氏高昌國と中國王朝」, 夫馬進 編, 『中国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7.
- 中砂明德, 「後期唐朝の江淮支配—元和時代の一側面—」, 『東洋史研究』 47-1, 1988.
- _____, 「劉後村と南宋士人社會」, 『東方學報』 66, 1994.
- _____, 「士大夫のノルムの形成—南宋時代—」, 『東洋史研究』 54-3, 1995.
- 平田陽一郎·山下將司, 「唐·翟天德墓誌」の譯注と考察」, 『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50, 2016.
- 平田陽一郎, 「石索巖墓誌」, 石見清裕 編, 『ソグド人墓誌研究』, 東京: 汲古書院, 2016.
- _____, 「唐·慕容曦輪墓誌」の譯注と考察」, 『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54, 2020.
- 山下將司, 「安史の亂におけるソグド人李抱玉の事績について」, 『史艸』 59, 2018.
- _____, 「漢文墓誌より描く六世紀華北分裂期のソグド人」, 『日本女子大學紀要(文學部)』 69, 2019
- _____, 「朱耶氏と沙陀三部落: 唐末の代北におけるテュルク·ソグド軍團」, 『メトロポリタン史學』 15, 2019.

(Abstract)

The Motivation and Arguments of the Research in the History of Military System of Tang Dynasty in Japanese Academia

Lee, Ki-chon

The research in the history of Tang dynasty's military system in Japanese academia has been conducted by 'the experience of war' as the time axis and 'schools of thought' as the space axis. The early scholars who experienced the war were cognizant of the fact that military system was not the matter of right and wrong but the experience of survival.

It originated from the experience of war why scholars of the war generation, such as Hino Kaisaburo who suffered from a spine fracture produced by torpedo attacks, Kurihara Masuo who lost all but one comrade in the war, and Tanigawa Michio who was conscripted into the army as he matriculated at university on the verge of defeat in the war, and scholars of the post-war generation had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military system.

Hamaguchi Shigekuni focused on the matter of the biggest anguish of people, namely military service, and Kurihara Masuo compared military provinces in the late Tang to Japan's warlords in the 1930s by a common denominator 'mutiny', and sought an inevitable principle in history which is 'Restrain Military provinces, Encourage the Cabinet.' The motive behind their researches also came from the experience of war.

Scholars of the war generation were divided into two camps, Tokyo university and Kyoto university. They heavily debated the utility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burden of military service. On the contrary, scholars of the post-war generation did not have scholarly debates between schools, but rather had a tendency to conduct individual research focusing on specific cases. They tended to focus on excavation of new historical sources and individual research, but have not yet presented 'the zeitgeist

of Tang dynasty.’

Keywords : Hamaguchi Shigekuni, Hino Kaisaburo, Kurihara Masuo,
Tanigawa Michio, Kikuchi Hideo, the System of territorial soldiery,
Conscript-recruits, Military governors, Military provinces,
Expansionism